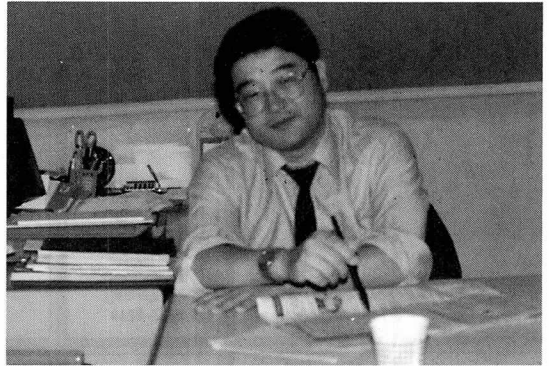


토탈시스템 전문회사 「(주)가인시스템」

구 지 회 사장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의 통합에 주력하고 있는 주식회사 가인시스템. 남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이미 늦다며, 너무 이르고 안된다는 처녀지 만을 골라 개척해 나가는 야심찬 기업이다. 회사 설립 6년이 지난 지금 4개의 자회사를 거느릴 정도로 고성장을 거듭해 가인그룹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을 이 회사의具지회 사장(48)을 만나 본다 ……편집자註



전문회사 자리 확고히 굳혀

1985년 5월 창업 이래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의 통합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 주식회사 가인시스템.

시스템 분석 및 설계를 통한 토달솔루션과 제품의 안정성,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을 위해 새로운 기술에 과감히 도전, 이분야에서 전문회사 자리를 확고히 굳힌 기업이다.

종업원 200명인 이 회사의 작년 한해동안 매출액은 55억 여원에 이르며, 금년도 매출목표를 1백억원으로 잡고 있다.

경남 진양 태생인具지회 사장은 '68년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한 뒤 미 캔터키주 루이빌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후 미 IBM에서 근무하다 귀국,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수치지제어연구실장을 맡았고, '78년부터 금성사와 인연을 맺은 뒤 '85년 이 회사 컴퓨터사업부 상무이사직에 있던 중 독자적인 사업을 구상, 탈 샐러리맨을 선언하고 가인시스템을 설립했다.

현재는 (주)가인통신, (주)가인전자, (주)가인네트워크, (주)가인인터내셔널 등 회사가 5개로 늘어 났고, 기업부설연구소(가인시스템연구소)까지 설립하고 있다.

具사장이 사업을 본격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착안한 것은

시스템 분석 및 설계를 통한
토달솔루션과 제품의 안정성,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을 위해
새로운 기술에 과감히 도전해

주가 전광판 시스템으로 오늘
의 가인이 있기까지는 이 것이
큰 몫을 담당했다.

주가전광판으로 사업기반 잡아

이 시스템이 개발된 '85년 10월 당시만 하더라도 증권시세를 전하는 데는 흑판과 분필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가인은 컬러모니터를 활용한 주가시세 전광판을 객장에 설

치, 일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사업기반까지 잡았다.

물론 이 시스템이 매장을 찾는 고객에게 인기를 얻고, 증권사에 대량 설치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다.

시스템을 개발했으나 수요처가 없어 자비로 20인치 TV 8대를 구입해 증권사 객장에 설치, 주가의 오르내림이 색깔로 표시되는 것을 매장 고객에



게 보여주자 관심을 끌게 되었고, 이후부터 시스템의 수요가 급증했던 것이다.

그뒤 무인경비시스템과 환경 KETEL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각각 발표한 가인은 또 '88년 10월 KETEL 전용달기기를 개발, 당시로는 파격적인 가격인 20만원대로 보급해 KETEL 이용자 및 정보통신 저변확대에도 크게 일조했다.

현재 서울과 부산역을 비롯한 주요 지하철역이나 고속터미널, 김포공항등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 정보표시 시스템도 모두 가인이 만들어 낸 것이다.

남이 손대지 못하는 분야 골라 개척

“IBM등 세계 유수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성능이 비슷하지만 가격이 낮거나 가격은 비슷하지만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제품 패턴을 따라 잡아야 한다는 데 집착, 질이 비슷하지만 가격이 높은 상품을 뒤따라 만드는 경우가 많지요.”

이 때문에具사장은 대기업에게는 시장성이 없고, 중소기업은 기술력이 모자라 손대지 못하는 분야를 철저히 골라서 개척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임을 강조한다.

그는 대기업에 몸을 담았던

경험등으로 컴퓨터관련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사업이 잘 된다면 너무나 할 것이 모두가 뛰어드는 국내 시장 풍토를 누구 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을 지녔어도 출혈경

대기업에게는 시장성이 없고, 중소기업은 기술력이 모자라 손대지 못하는 분야를 철저히 골라서 개척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

쟁을 피해 일찌감치 손을 떼고, 남이 생각하지 못한 분야로 한발 앞서 간다는 것이 주위의 평이기도 하다.

가인의 사옥 2층 로비는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전체가 휴게실로 사용되고 있다. 직원들은 여기서 각종 대화를 통해

유기적인 업무협조 분위기를 만들고, 방문객을 접대하며, 조용히 업무구상을 하기도 한다.

학구파에 파이어니어 기질가져

“일본사람들의 사업패턴을 보면 많은 시간을 계획수립에 투자하고, 일단 계획이 수립되면 간단없이 일을 밀어 붙입니다. 물론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던 관계로 일의 차질은 거의 없는 편이지요.”

때문에具사장은 손과 발 보다는 머리가 빨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손과 발이 빠르면 그만큼 시행착오를 많이 겪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인지具사장에게서는 평소 직원들을 독촉하거나 사사건건 관리하는 모습을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많은 것을 사원의 자율에 맡긴다.

지금도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주위의 평 그대로 그의 사무실은 여느 기업 사장실과는 달리 사옥 5층 다락방 모양의 좁은 공간에 마련돼 있으며, 연구실 모습 그대로이다.

사원들은 이러한具사장을 정렬적이며, 발치가 넓고, 학구파라고 한결같이 지적한다.

스스로 연구개발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그의 파이어니어적인 기질이 살아있는 한 가인은 물론 더 나아가 국내 정보통신업계의 미래가 밝지 않을 수 없다.